

야 4당,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
‘김태우·신재민 특검’ 평화당·정의당은 반대 입장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160명(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린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적극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

우·신재민·정도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상임위 개최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 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안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며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손혜원 악재’ 촉각…당차원 진상조사

손의원 “구도심 살려보려 부지 산 것”…박지원 “투기로 안 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정략 의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라는 돌발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은 16일 지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별도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은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두 의원의 해명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선(先) 진상조사, 후(後) 조

치’로 가닥을 잡으며 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무처에 상황을 좀 파악해보라고 아까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를 들어보고 그것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

은 이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는 전날 SBS 보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 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이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

했는지다.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 의원이 문화재 재생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말씀도 손 의원이 적산가옥에서 태어나 은퇴 후 목포 적산가옥에서 살겠다며 구매했고, 결국 하는 조카에게도 구매하게 했다는 말씀을 제게 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한국 5·18조사위원 추천…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할 사람을 추천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민주화항쟁은 우리 현

대사에서 진상규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아직도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활동을 안 하도록 한국당이 각별히 기본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세비 반으로 줄여 시민형 의원으로”

신년 기자간담회…“손금주·이용호와 함께할 가능성 있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천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 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

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입당·복당을 시도했다 좌절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해 “정치는 가치와 노선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진 후에 평화당과 함께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선 “사실, 같은 식구들”이라며 “같이 한술밥을 먹었던 식구들과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황주홍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6일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림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위원장은 “1970년 나무식목일 제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식

수운동을 펼친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이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비타민나무 계약재배

3.3m²(1평)당 4~6萬 소득

1. 비타민나무는 화학비료나 농약살포가 필요 없어 특별한 재배 기술 없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재배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당사는 천연비타민 원료로 제약, 식품, 화장품의 원료로 납품하며 천연비타민 정, 비타민 차, 비타민 음료, 비타민 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수확되고 있는 당사 농장 견학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국내 최초로 비타민나무재배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제품 및 원료를 개발하는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선착순!

생산 모목량 한정

식재시기: 10월 말~땅이 얼기 전

강원비타민나무
영농조합은

➔

육묘생산
모목공급 기술지원

➔

계약 재배자
수확한 열매는

영농조합에 납품

➔

연구개발

➔

원료생산

➔

제품생산

강원도 춘천시 식주로 145번길 69-14 www.비타민나무.kr 033)241-8282